제 17 장사도행전 Tape #8106

바울은 유럽 안에서 그의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소명을 받고, 그는 유럽 지역 선교를 시작했던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는 팽팽히 긴장된 상황 아래서 빌립보를 떠났으나, 거기에 한 무리의 믿는 자들을 남겼기에, 그는 나중에 그들에게 그의 서신들을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면서, 17 장은 말하기를,

1 절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것은 마치 가벼운 산책처럼 들리지만, 암피폴리스는 빌립보에서 37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아볼로니아는 암피폴리아에서 48km 의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60km 떨어진 곳에는 데살로니가라고 알려진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가 설치해 놓은 고속도로 상에 위치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문화의 중심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다 빠른 복음의 확산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2 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말하기를[롬 1:16],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그것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새로운 도시에 가면, 그는 그 곳에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 그곳에 있는 그리스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그 한 지역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습관에 의해,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 갔는데, 그것이 그의 습관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 일정한 공식의 행사였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매우 합리적으로 제공됩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아주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바울은 롬 12:1 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고안한 어떤 당신의 삶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대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헌신할 충분한 이유가 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당신의 몸을 드릴 충분한 이유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세요, 하나님은 사 1:18 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합당한 것이지만, 실제에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비합리적이라고 거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속이고 있으며,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추론할 수 없도록 포로로 붙잡아 둔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것을 탓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고집하며 서 있는 그 자세가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기능을 다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믿는 잡동사니는 옛적에 진리를 거절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쓸 때, 그는 그들이 마음에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얼마나 현혹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진리보다는 거짓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을 위한 사례이기에, 성경으로 이치를 따졌습니다. 물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일 것이고, 그는 해석되어진 것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한 번 더 사용되는데, 누가에 의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셨다는 곳에서 한 번 쓰입니다. 같은 단어로, 바울은 열어 상세히 알려 주고, **3 절 *"설명하고 주장하여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한다 하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래서, 그는 메시야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선언하였는지를 그들의 성경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그들과 이사야서 53 장을 나누었을 것이고, 아마 시편 22 편도 나누었을 것이며, 시편 16 편을 또한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곳들에는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데,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 분의 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신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메시야가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야만 할 필요성을 강경히 주장했습니다. 자, 그들은 대언자들이 메시야의 고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메시야에 관한 대언들까지도 물론 알았으나, 그들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통치, 메시야의 통치를 다루었던 대언들과 양립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메시야의 고난과 죽음에서 일으키심의 대언들을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것과 융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랍비들 중에 많은 학자들은 두 메시야, 하나는 고난 받는 메시야와 다른 하나는 통치하는 메시야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침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즉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사자를 예수님께 보냈을 때, 요한은, 당신이 우리가 찾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두 메시야의 원리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고난 받으실 그 분입니까? 혹은 당신이 왕국을 세우실 그 분이십니까? 우리가 왕국을 세울 다른 사람을 찾아야만 합니까? 고난 받는 것과 영광스러운 통치 사이에는 광대한 갈림이 있기 때문에, 대언들의 말씀을 화합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메시야가 두 번 오는 것에는 쉽게 대답이 됩니다. 두 메시야가 아닙니다. 한 메시야가 두 번 오는 것입니다. 베긴 수상이 살아있었을 당시 나는 그와 함께 앉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매우 매혹적이며, 성경에 아주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의 믿음에 큰 다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바로 하늘과 땅과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메시야가 오시는 것을 믿지요? 나도 메시야가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원초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메시야가 오실 때, 당신은, 저것이 메시야야! 라고 말할 것이고, 나도, 저것이 메시야야! 라고 외칠 것이나, 나는, 그 분께서 이곳에 오시는 것은 두 번째의 오심이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바울은 메시야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실 것을 보여주는 성경을 꺼내 그들에게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이 메시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 절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귀부인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니라."* 바울이 메시야에 관해 성경을 통해 보여주자,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5 절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천박한 불량배들, 그리스에서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갱단과 같은 것이며, 마치 길거리의 구석에 서 있는 자들보다 더 천한 자들을 말합니다.)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 절**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쳐 이르되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단지 그것이 옳지 않을 때, 나는 고발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 올바르게 세웠습니다. 세상이 엉망이므로, 그것을 올바르게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올바르게 돌려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7 절**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카이사르의 명령을 거슬러 행하며 말하되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하며,"***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중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이지만,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일이 있었고, 로마에 있는 충성스러운 시민들은 카이사르를 주라고 부르거나, 혹은 정부가 통치하도록 요구되었으니, 정부는 우리 삶에 있어 주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카이사르를 주라고 부르는 것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험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수 천, 수 만의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의해 사형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카이사르가 주라는 말을 거절했으니, 마치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군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형을 집행할 때, 고문대에 때려눕히거나, 화형하거나, 십자가에 못을 박거나 할 때에, 먼저 그들에게 철회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즉 그들이 십자가형을 받으러 그 자리에 나오면, 사형 집행관은, 카이사르가 주시다! 라는 말을 말하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단지 카이사르가 주라고 말한 그것으로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집행해야 할 것이 기각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 중 수백, 수 천 명이 카이사르의 주됨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십자가로, 고문대로, 화형으로, 목이 잘려 나갔습니다. 초대교회의 용기와 결단을 살펴보기 위하여 폭스의 '순교자의 책'은 꼭 한번 읽어볼만한 책입니다. 당신이 그 책을 읽으면서,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 만큼 이 사람들이 가진 용기와 결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발의 내용으로 삼았는데, 세상을 뒤집어 바꾸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로마 시민들인 우리를 위하여 모순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왕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8 절 ***"이 말을 듣는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을 부추기니,"*** **9 절** ***"이들이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우편 보석금을 냈던 것입니다.) ***"그들을 놓아 주니라."*** 그래서, 그들은 심의에 나올 것이라는 확증을 위해 보석금을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사역한 것에 대해 매우 간결한 분량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짧은 시간 거기에 있었으나, 강력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사도행전 17 장, 여기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노트해 봅시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후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편지로 썼습니다. 그가 떠난 지가 지금 진짜 오래 되었습니다. 살전 1:1-7 에 보면,

1 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

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 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3 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바 너희의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4 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아노라." 5 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다 아는 바와 같으니라." 6 절 "또 너희는 많은 박해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7 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비록 바울이 짧은 기간 거기에 있었지만,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누가가 거기에 남아 한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평판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통틀어 넓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게 되면, **8 절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곳곳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나니," 9 절 "이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10 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를 말하기 때문이니 이 분은 앞으로 임할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 2 장 1 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2 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치욕을 당하였으니 많은 싸움을 싸우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3 절 "이는 우리의 권면이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간사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음이라." 4 절 "오직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 받은 대로 우리가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 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무 때라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그리고 그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 약간의 개인적인 노트를 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유익을 줄 것인데, 여기 17 장과 협력하여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바울의 서신을 읽도록 마치 과외를 한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짧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었던 것을 알고 이해하는데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은 말하기를, 오, 두 서신 모두? 음, 다음 주 바울은 고린도에 가고, 음, 고린도인들에게 가는 서신들은 아주 조금 길었습니다. 이것들은 약간 짧은 서신입니다. 짧은 장들이고 단지 몇 장밖에 없으나, 만약 당신이 과외로 점수를 따려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번 주 고린도 서신을 따라 읽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장소에게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당신에게 큰 지식을 주게 될 것입니다.

10 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뢰아로 보내니,"* (자, 데살로니가는 주요 고속도로 상에 있어, 매우 혼잡한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베뢰아는 밟아 다져진 길을 떠난 아주 소박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같은 명성은 찾아보기 힘든 곳이죠. 황제 키카로아가, 극히 가난한 행정관인, 티로라 이름하는 동료에게 보낸 흥미로운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편지에서 이 친구를 비난했습니다. 그가 거기 데살로니가에서 통치를 행한 뒤, 얼마나 혼잡스럽게 만들고 떠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뢰아로 일종의 도망을 친 것 같은데, 당신이 알지만, 거기서도 그는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편지였지만, 당신이 아는 대로, 판에 박히지 않은 곳처럼 그가 베뢰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뢰아에 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 절**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탐구하므로,"*** 바울은 의심할 것 없이 메시야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메시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조사했습니다. 바울이 진리를 말했는지 보려고, 그들은 그것들을 공부했습니다.

12 절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부지런한 조사는 바울의 설교에서 말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척 미슬러가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척 미슬러가 말하는 것을 어떤 것이라도 다 믿지는 말고, 베뢰아인이 되기 바랍니다. 가서 그 성경을 조사해 보아야지요. 내 생각에 척 미슬러는 그가 믿지 않는 것들을 많이 말하기 때문에, 당신이 반드시 성경을 조사하도록 해 줍니다. 내 생각에 그의 주장은, 알겠지만, 당신이 부지런히 조사하도록 하며, 반드시 찾도록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는 매우 영감이 있으며,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매우 도전을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찾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그리하더라"*** **13 절**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선포하는 줄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늘,"*** **14 절**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한편 바울은 밀려 서둘러 나갔습니다.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도록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시작했는데, 감옥에 내던져졌고, 매를 맞고,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고, 일어난 혼잡 때문에 밤중에 일종의 비밀리 나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베뢰아에 있고, 다시, 당신이 아는 대로, 무슨 문제를 일으켜 베뢰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말하는 것 같이, 신약성경은 혁명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으로 가득 찬 것이라는 말이 되죠. 그가 가르친 것마다 혁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확실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삶에 혁명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내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받았을 때 변화, 역동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 속에 계속되는 혁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5 절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테네에 이르러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서둘러 여기로 내려오도록 그들을 부르려고 명령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바울을 거기서 만날 수 있도록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되돌아갔습니다.

16 절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속에서 격동하므로,"*** 아테네는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그 도시의 사람들보다 많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물론 범신론적이었고,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신들, 평화의 신들, 분노의 신들, 사랑의 신들, 증오의 신들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도, 그들은 그 감정에도 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아테네에 큰 재앙이 있었던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떼를 아테네에 풀어 놓았었고, 그곳은 한 양이 멈춘 적이 있었을 것이며, 그것에 가장 가까운 곳에 신에 대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에게 그 양을 희생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재앙을 옮길 목적으로 신들을 달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멈춘 곳 가까이에 만약 우상이 없었다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양을 희생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놓친 하나가 거기 밖에 있어도, 우리는 당신이 감정을 다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우상들을 가졌기에, 바울은 그 도시가 온통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조차, 큰 사원, 주피터 사원의 큰 폐허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보기에 놀라운 것들입니다. 파라티온과 전[whole] 아레오파구스는 보기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고 격동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볼 수는 있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진실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는 눈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채워 보려고 했고, 수많은 다른 신들을 숭배하려 했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17 절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인사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18 절 "그 때에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서투른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음이라." 19 절 "이에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려고 가서 이르되 네가 말하는 이 새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 절 "네가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가져왔으니 그러므로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 절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는 나그네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지금 Los Angeles 에 올라가 보면, 시내 중심부에 퍼싱 스퀘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마치 LA 에 있는 일종의 마르스 언덕과 같은 곳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모였을 것이며, 어떤 신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를 시작했을 것이고, 사람들, 군중들은 퍼싱 스퀘어에 모여 들었을 것이며, 사람들은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의 철학을 꺼내 놓으면 다른 사람은 질문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쥐어뜯고, 그리고 반박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즐거움으로 그곳에 내려가곤 했는데, 모든 토론을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표현되고 있던 여러 가지 개념들과 여러 가지 철학들을 듣게 됩니다.

자, 에피쿠르스 학파는 재미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되는 것은, 그들은 모든 것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들은 범신론이었으나, 신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믿었고, 사실 전혀 이 세상을 돌보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사람의 주요한 결국이라고 믿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져온 즐거움의 양에 의하여 각각의 경험을 산출했습니다. 실제로는 육신적, 세속적, 물질적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그렇게 많은 즐거움이 나중에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가장 높은 즐거움이란 나중에 고통을 가져오지 않아야 할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 스토아 학파는, 모든 것은 신이었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신은 불같은 영이었습니다. 그 영이 물질 안에서 무디고 어리석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든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영의 작은 불꽃이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모든 것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되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에, 존재한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신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운명되어졌습니다. 신은 모든 것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돌보지 않는데도 무엇이든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멈출 수 없고, 당신이 그것을 도울 수가 없기에,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신의 뜻이었다고 믿었으므로,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발전과 그 다음, 붕괴했고,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순연을 통하여 계속되어 나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팽창하는 우주 안에 있다는 빅뱅의 원리와 같이, 어느 한 날에 전부가 그것의 정점을 칠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 다른 폭발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진화의 발전을 가진 또 다른 150 억년이 계속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아학파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붕괴가 있었고, 그러면 다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매우 많은 주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일종의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호기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단지 새로운 개념과 생각을 가져올 주변에 그냥 서 있습니다.

22 절 ***"그 때에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거기 마르스 언덕에 가 보면, 아테네 아래쪽에 있는 시장인, 시장의 양 끝에 큰 전을 가진, 아고라의 위대한 모양을 가진 아레고바오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파테논과 아테네의 신전과 그 모든 것이 있고, 이 모든 우상들, 조각들 가운데서 많은 제단이 있는 도시를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미신적이라 표현했으나, 조금은 빈약한 번역이라 생각됩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모욕적으로 다룰 만큼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라서, 바울이 말하려 했던 것은, 당신들은 매우 종교적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신들이 너무 종교적이라는 말이지요. **23 절** ***"이는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경배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을 발견하였음이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 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24 절**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 의해 세워진 가장 놀라운 신전들 중에 어떤 것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들에 둘러싸여,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않으시느니라.

25 절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사람은 그의 신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들을 경배해 왔습니다. 느낌으로 볼 때, 지난 시대에 살았던 사람, 즉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더 정직하고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때보다 더 속이며 사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동일한 신을 경배하면서도 더 이상 우상[어리석은 형상]은 만들지 않으므로, 그들이 그 신을 경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시대의 그들은 이것이 자기 삶에 최고의 열정이라는 것을 적어도 인식했는데 말입니다. 나는 섹스를 경배한다, 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솔직했습니다. 그들은, 나는 사랑과 미의 여신을 가졌다, 그들은 그들의 섹스의 여신인 사랑과 미의 여신[Aphrodite]을 가졌다고 말하죠. 그들은 적어도, 이것은 내가 경배하는 신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정직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은 섹스를 경배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오히려 정직이 없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부정직합니다. 그 친구들이 컴퓨터에 앉아서, 그리고 음,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이것들이 인터넷과 같은 곳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볼 수 있어요. 지금 다른 날 밤에 텔레비전에서 내가 보았던 그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록 영상들이 인터넷에 끼어 들어가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가 보며, 그것에 매료됩니다. 그들은 그것에 목이 걸리고, 그것에 매료되며, 결국 그것은 그들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는 폐물에 들어가, 전화를 걸어, 접속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 이용할 수 있는 음화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X 비디오를 넘어 약간 멀리 한 단계 나간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들어가 봅니다. 밤마다 그들은 그것을 화면으로 불러오기를 기다릴 수 없으면서, 그들이 그것을 경배한다는 것을 극구 부인합니다. 거기에 부정직이 있으며, 실제로 우상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더 정직했습니다. 그들은 보다

열려 있었습니다. 예, 지금 내가 무엇 안에 있다, 이것이 내가 경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신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거기에는 정직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경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을 만들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신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참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들이 모르고 경배하는 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신, 내가 그 분에 대해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되심을 볼 것입니다. 그 분은 손으로 만들어진 이 전들에 거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것도 드릴 수 없고, 그 분은 당신으로부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이 그 분으로부터 대단히 많은 것을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그 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라."*** 당신이 생명을 위해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그 분께서 당신을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26 절 "또 그 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그리스도 안에 국가적인 규정이나 민족적인 그룹의 장벽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한 피로 만드셨기에, 비록 우리의 피부에 다른 색소 형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리시킨 민족적 그룹의 벽을 깨뜨리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따로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나는 진짜로, 당신이 알지만, 백인, 앵글로 색슨, 카우카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알지만, 영국인도, 프랑스인도, 그리고 그 어떤 나라의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는 정말 새로운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인종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한 피로 만드셨다고 말했는데 말입니다.)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을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 이미 정해졌다는 것으로, 그 분은 당신과 약속해 두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때를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지킬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킬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 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알게 하시지는 않으셨으나, 어느 날 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오고야 말 것인데, 내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것부터 돌보아야 하는데!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며, 우리 모두에게 올 것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27 절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요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 분은 사람의 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넣으셨습니다. 사람은 그가 가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많은 것들을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생명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은 넘치는 잔과 같을 것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내면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요,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 분이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다.

28 절 "이는 우리가,"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그 말이죠. 다윗은 시편에서[시 139:7-10],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주의 눈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에 계시오며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를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내 생각에 이것은 우리 모두가 크게 인식해야 하는 진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결코 그 분의 임재를 떠날 수 없으며, 그 분의 임재에서 도망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요나의 실수가 그랬었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도망치려고 했으나,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양심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항상 양심적이지 못하여, 가끔 내가 사역들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 양심적이었더라면, 그것을 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와 관련해서 보면, 그는 이 쪽을 보고, 또 저 쪽도 보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집트 사람을 죽였으나, 그는 위를 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에 대한 양심을 잃어버리기에, 우리가 사는 것과 움직이는 것과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단지 그 분 안에서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 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처신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주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설교하지 말았어야만 했겠죠.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계속적인 인식을 가졌다면, 자체 안에 진정한 거룩함을 위한 자극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중의 어떤 시인을 인용하여,) ***"이러므로 너희의 시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 분의 자손이라 하였느니라."*** **29 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일진대,"*** (시인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은이나 금이나 돌로 만든 이 형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그것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단언하고 있으며, 성경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태초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고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땅에서 흙을 취하여 몸을 형성하셨고, 생명의 호흡을 위해 그에게 입김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날을 둘러 볼 때, 하나님의 의지를 보기 시작하는 교제와 예배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당신은 사람의 창조됨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고도의 진화된 동물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잃어버
린 연결고리가 우리들과 동물의 왕국사이의 것이 아니라, 이 잃어버린 연결고리는 사람과 하나님사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던 것에서 내가 형상을 일치시키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그 분과 연합함과 교제 속으로 우리를 되돌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타락했을 때 사람이 잃었던 것을 당신을 위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고통을 통과하고 있었을 때, 그를 위로하려고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욥, 당신이 하나님과 바르게 하면 그것들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을 바라보고, 그 분이 얼마나 광대하신가를 깨달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네. 나는 이 작은 유성의 바로 이 아래 있는 존재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 경우를 탄원할 나는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그는, 우리 둘 사이에 손을 얹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딜레마를 보였습니다.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사람사이의 간격은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기초하여 시작한 모든 종교적 시스템이 미약하고 실패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께 도달하여 만지려고 했으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이 실패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종교들과 반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을 만나러 내려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당신이 이유에 대해, 고려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한한 사람을 간단하게 만나러 오실 수 있었는가를 볼 수 있기는 하나, 또한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종교의 실패에 대한 합리적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를 한꺼번에 데려가는 곳입니다. 욥은, 나는 우리 둘 사이에 그 손을 얹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같은 것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며, 그 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던 생명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계신 것을 말하며,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동시에 나를 만질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욥의 울부짖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으나, 그 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계실 수 있으십니다. 그 분은 나를 만지실 수 있으시고, 동시에 아버지를 만지실 수 있으십니다. 그 분은 바로 그 잃어버린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를 충만으로, 만족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찾으십니까? 원숭이를 보지 마십시오.

모세를 볼 때, 그가 실패한 자리에서, 모세, 눈을 들어 보세요, 당신은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물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 분명한데, 이는 여러분을 그 분의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돌아올 때, 당신의 삶은 부유하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모습으로 깨어날 때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 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분과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형상으로, 당신은 본래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안한 어떤 형상으로, 은, 금, 그리고 돌의 형상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이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조각들을 볼 수 있기에, 아마 그것으로 놀랄 것입니다. 당신은 이 형상들과 방종들을 형성하는 능력에 대해 놀랄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람의 수용력에 대해 겁나게 합니다. 그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곳으로는 당신을 결코 데려가지 못하고, 단지 당신은, 우, 그 예술가 진짜 우수한데! 라고 생각하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기, 우리의 예배당을 단순하게 건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지 나무뿐이죠. 우리가 사람의 예술적인 수용력이나 화려함에 끌려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매료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끌리려고 여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30 절 *"이같이 무지하던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무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세상 모두에게 전파될 복음 말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서 돌아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죄를 범하는 행위로부터 돌

아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얼굴을 열고 있는 우리는 그 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같은 형상 속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31 절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려 하시고,"*** (자, 이것을 노트하세요. 그 분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살다가 죽고, 그들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분은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분이 하실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주님! 의롭습니다! 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매우 완전합니다. 그 분이 의로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무도 공의롭습니다.) ***"이에 그 분을,"***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32 절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말하기를, 오, 어서 오세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 절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서 떠나니라."*** **34 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가까이 붙어 믿으니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스우스와,"*** (아레오바고는 특별한 그룹이었는데, 사람들 중에 선발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 지식적으로 위대한 것이 고려되었던 것입니다. 디오니스우스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설교한 복음에 대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꾸물거렸습니다. 그들은 가끔 이것에 대해 더 듣기를 원한다는 좋은 말도 했습니다. 다른 한 편에서, 다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것을 말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씨는 길 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이 있는 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항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노트할 필요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 중에 있습니까? 혹은, 결정을 미룬 자들 중에 있습니까? 음, 아마도 언젠가라는 중에 있습니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을 헌신하며, 믿는 자들 중에 있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진리를 얻어 나누는데 영감으로 서 있다는 것 때문이고, 복음을 선포한 뒤에 종종 겪는 핍박에 대해 진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위한 우리의 증언에 대해 담대할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주님, 당신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없는 그들은 소망도 없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잃어버린 세상에 기쁜 소식을 운반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 당신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당신의 형상으로 변형시키는 당신처럼 당신의 증인되게 하소서! 주님, 복음의 사랑의 빛을, 우리의 삶으로, 어두운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